

부부폭력에 대한 가정관리학적인 접근*

A System Approach of Family Life Management for Spouse Violence

曉星女子大學校 家庭管理學科

교수 : 김 정 옥

Dept. of Home Management, Hyosung Women's Univ.

Prof. : Kim Jung O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연구모델 및 측정변인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if family violence affects family relationships. To assess these effects, the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impact of wife abuse on marital satisfaction in a system approach of family life management. 184 married wives anonymously completed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the following scales : conflict tactics scale, family strengths and marital satisfaction. Results indicated a significant decrease in perceived family strengths and marital satisfaction as husbands used physical violence against wives.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the assumption that violence has a negative impact on family relationships.

* 본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 육성과제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I. 서론

가족은 역할 능력과 전인격의 접촉이 이루어지며 친밀한 인간관계를 지닌 집단이다.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은 여러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제한된 자원내에서 그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여 다룰 수 있는 사상들(events)이 가족내에 많이 존재하고, 또한 가족은 상이한 성과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적인 갈등의場이 되기도 한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비록 갈등이 적거나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갈등은 필연적이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은 불가사의 하다. 사랑과 갈등의 공존은 우리 인간을 수세기 동안 당혹하게 하여 왔다. 서로 사랑 할 때에도 두 사람은 하나가 되지 않는다. 사랑이 우리를 통합해 주기를 기대하며 사랑할 때 사람들은 하나가 된듯한 감정을 가질지라도 이러한 사랑은 환각일 수 있다. 서로 사랑하는 동안 개인들은 그들 자신들의 정체감, 욕구, 바램 그리고 과거를 계속 지니고 있다(Strong, 1986). 조화(harmony)는 이상(ideal)이다(Straus, 1980).

갈등이론가들은 결혼을 포함한 인간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일컫는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 자주 있고 강렬하며 심각한 다툼에 까지 확대하여 심리적, 언어적 학대나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르게도 된다(Retzinger, 1991).

배우자의 신체적 폭력이 이혼의 원인으로 높게 지적되고 있다(Price and McKenry, 1988).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혼의 원인으로 연도별 사건 원인의 추이가 본인 학대의 원인이 1985년에 5.5%, 1989년 14.6%, 1991년 14.9%로 상당한 증가의 폭을 보여주고 있다(사법연감, 1991). 그리고 이혼자들(여성)을 대상으로 이혼원인에 대한 실태 파악(김정옥, 1992)에서도 배우자의 신체적 폭력이 높게 지적되어 학대행위 자체가 결혼 해체의 심각한 이유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배우자의 신체적인 폭력이 정서적인 불안, 자살, 알콜 문제, 약물문제, 자기비하, 심인성 질환 등의 개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입증(Bavolet, 1983 ; Galles and Cornell, 1985 ; Walker,

1979)과 한국가족에서는 아내구타에 관한 정신의학적 측면(김광일, 1985a ; 1985b)과 폭력이론(윤진, 1987) 그리고 아내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서명선, 1984 ; 김정숙, 1986),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부간의 폭력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심재근, 1984 ; 김정옥, 1985, 1987 ; 김경화, 1986 ; 이영숙, 1986 ; 전춘애, 1989)등은 진행 되어 왔으나 부부폭력이 가족원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가정관리 체계 모형의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는 가정관리체계 모형의 실증적 검증(이연숙, 두경자, 1992)과 가족생활과 관리체계 모형을 접목시킨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김정옥, 박순희, 1990)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당연하고 정상적이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는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러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위협하게 하는 것은 갈등 그 자체가 아니고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가정관리의 체계적인 분석 방법으로서 부부간의 폭력에 접근 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분석에서는 가족을 정보를 처리하는 단위로 본다. 즉 가족은 투입(환경으로 부터의 정보) 부분을 취하여 이 투입부분을 가족의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 처리에 대한 가족의 반응의 결과가 산출부분이 된다(Strong, 1986).

부부 간의 갈등 요인(요구)과 이들 갈등을 처리하는 자원으로서 가족의 결합력(지원)을 투입요소에 설정하였다. 변환과정은 가족의 규칙에 따라 처리 되는데 가족의 규칙은 형태화된 반응이거나 그 가족 특유의 반응이며 습관이므로 비폭력, 폭력적인 방법을 처리과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갈등을 처리하는데 실패하는 것이 결혼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강한 힘(Cuber & Harrott, 1965)이 되고, 결혼은 부부관계(Strong, 1986)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결혼 만족도 변인을 갈등 처리방법의 결과로서 산출부분에 적용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관리학내에서의 가족학 정체성의 확립을 시도하기 위하여 한국가정에서 겪고 있는 결혼갈등 요인과 갈등처리의 한 방법인 부부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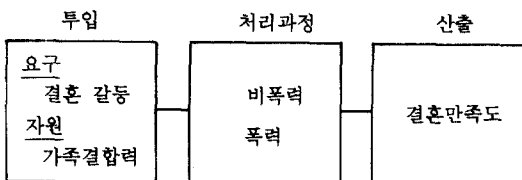
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점에서 투입요소의 하나인 요
구로서 결혼갈등, 또다른 투입요소인 자원으로 가족
결합력 그리고 갈등처리 과정에서 오는 폭력과 비폭
력을 처리과정, 결혼만족도를 산출요소로 보고 투입,
과정, 산출 요소간의 관계를 밝혀 폭력가정의 특성
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 (1) 폭력 가정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은 어떠한
가 ?
- (2) 도시 가정에서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어느 정
도인가 ?
- (3) 투입요소와 처리과정의 관계는 어떠한가 ?
○처리과정으로 나타난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은 투입요소인 갈등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
○처리과정으로 나타난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은 투입요소인 가족결합력에 차이가 있는가 ?
- (4) 투입요소와 산출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결혼만족도와 투입요소인 갈등요인은 폭력가
정과 비폭력가정간에 차이가 있는가 ?
○결혼만족도와 투입요소인 가족결합력은 폭력
가정과 비폭력가정간에 차이가 있는가 ?
- (5) 처리과정과 산출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의 결혼만족도는 차이
가 있는가 ?

II. 연구 모델 및 측정변인

그림 1은 가족폭력의 가정관리학적 접근을 설명하
기 위한 연구 모델로서 가정관리의 체계모형에 기초
하였다.



(그림 1) 연구모델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생
활을 지속하고 있는 부인 184명을 조사대상으로 하
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1) 결혼갈등척도

질문지는 사회인구학적인 특징에 관한 질문과 결혼
갈등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갈등에
관한 내용으로는 한국 도시가정에서 겪고 있는 결혼
갈등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 예비조사에서 결혼갈등의 내용을 개방형 질문으
로 사전 조사하여 정리한 것으로 30문항을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매우 그렇다(5)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의 5점 척도이다. 본 도구의 Cronbach $\alpha=.86$ 이
었다.

(2) 가족결합력척도

가족자원으로서의 가족의 결합력(family strength)상
태를 알아보기 위해 Olson팀(1982)의 12문항을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의 긍지(pride), 신뢰(trust),
성실성(loyalty), 문제해결능력(competency in resolv-
ing problem)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Family
Strength 척도는 5점척도로, 긍정적인 문항(8문항)과
부정적인 문항(4문항)으로 되어 있고, 긍정적인 문항
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을 주고, 부정적인 문항의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에 1
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5점을 주었다. 12문항을 합산
하였고, 점수가 높은 집단이 가족의 기능이 잘 수행
되는 가족으로서 건강한 가족이 된다. 본 도구의
Cronbach $\alpha=.89$ 이었다.

(3) 결혼만족도척도

결혼만족도는 Schumm팀(1985)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의 3문항을 사용하였고 이 도구는 결혼생활의 만족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배우자로서의 만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반응 문항은 더 바랄 수 없이 극히 만족한다(7)에서 아주 극도로 불만족한다(1)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Cronbach $\alpha=.88$ 이었다.

(4) 갈등전략척도

갈등의 처리과정으로서는 Straus(1979)의 갈등전략척도 (Conflict Tactics Scale)를 수정 보완하여 15문항을 사용하였다. C.T.S.의 반응문항은 늘 그렇다(5)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갈등의 처리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을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으로 분류하였다. 갈등전략척도 C.T.S.의 요인분석(김정옥, 1987)을 근거로 하여 C.T.S.문항 9번: 아내에게 직접 물건을 던짐, 10번: 밀거나 움켜잡고 흔들, 11번: 뺨을 때림, 12번: 발로차서 주먹으로 침, 13번: 흠뻑 두들겨 팼, 14번: 흉기로 위협, 15번: 흉기사용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집단을 비폭력 가정으로, 문항 9, 10, 11, 12, 13, 14, 15번에 '한두번 그렇다' 이상 빈도에 반응한 집단을 폭력가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폭력가정 중 9, 10, 11, 12번 문항 중 어느 한 문항이라도 '한두번 그렇다' 이상의 빈도에 응답하고 13, 14, 15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반응한 집단을 약한폭력가정, 13, 14, 15번 문항 중 어느 한 문항에서도 한두번 그렇다 이상의 빈도에 반응한 집단을 '심한폭력가정'으로 지칭하였다. 본 도구의 Cronbach $\alpha=.89$ 이었다.

3.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주제의 특성상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다양한 표집방법을 병행하였다. 1992년 6월에서 8월까지 조사자들의 연고가 있는 아파트 방문을 통

한 학생가정의 편의표집 및 우편표집 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집은 비확률적 편의표집에 의존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각 도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인 분석과 Varimax를 이용한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를 파악하고 각 요인의 신뢰도를 위해 Cronbach의 내적 합치도(α)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독립변인군과 종속변인군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비폭력가정과 폭력가정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

폭력가정은 <부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종교, 결혼생활 지속년수, 가족생활 주기, 가족구성, 자녀수)에 있어서 비폭력가정과 비교해 볼 때 분포상 두드러진 차이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폭력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연령이 46-50세, 51-55세가 각각 19.35%로 전체연령 범위 중 46-55세가 38.7%(36명)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폭력가정에서는 15.38%, 14.29%로 46세-55세가 29.67%(27명)이었다. 결혼지속 년수에서는 폭력가정이 15-20년 미만이 11.83%(11명), 20-25년 미만이 24.73%(23명)이었다. 남편의 교육수준면에 있어서 폭력가정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44.59%로 가장 높았고 대학중퇴 및 대학졸업이 20.27%이었다. 직업에 있어서는 사무직·기술직이 34.41%로 가장 높았으나 전문직·관리직에서도 20.43%나 되었다. 소득수준면에서는 폭력가정에서 100만원 이상 집단이 58.06%로 나타났고, 15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도 폭력분포가 26.88%이었다.

2. 한국 도시가정의 폭력실태는 어떠한가 ?

지난 1년간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비폭력실태

는 <표-1>와 같고 각 폭력 행위별 폭력율은 <그림 2>와 같다.

흡선 두들겨 패는 행위부터 흉기사용에 이르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폭력가정이 17.9%, 아내에게 물건을 던지는 것 부터 주먹 또는 발로 차는 폭력행위 중 어떤 폭력행위라도 한두번 행한 집단이 32.6%로 폭력집단 가정이 본연구에서는 50.5%로 밝혀졌다.

<그림 2>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아내에게 뺨을 때린 행위는 3명 중 1명의 비율 이상으로 남편이 아내의 뺨을 한두번 이상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주먹으로 또는 발로 차는 행위는 5명 중 1명, 흡선 두들겨 패는 것은 6명 중 1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흉기로 위협 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9.2%(17명)이며, 실제로 흉기를 사용한 사람도 7.6%(14명)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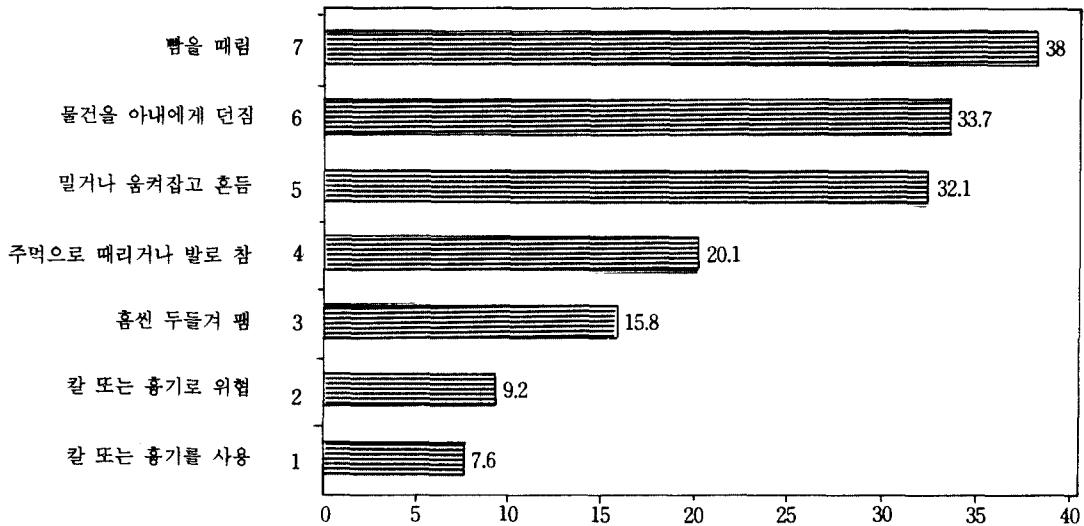
<표-1> 조사대상자의 아내에 대한 폭력·비폭력 분포 % (N)

비폭력 가정	폭력 가정 50.5%(93)	
	약한폭력가정 32.6%(60)	심한폭력가정 17.9%(33)
49.5%(91)		

3. 처리과정으로 나타난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은 투입요소인 갈등요인에 차이가 있는지와 처리과정으로 나타난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은 투입요소인 가족결합력에 차이가 있는가 ?

부부간의 결혼 갈등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30x30 상관행렬을 추정한 다음 Straus의 FACTOR 절차 중 주요인 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상관행렬표를 가장 잘 요약 해 줄 수 있는 인자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Cattell(1966)의 Scree-test를 적용한 결과 일곱 개의 인자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인자에 대한 직각회전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 I (7문항)은 주로 배우자의 외도와 애정이 없음 및 불신의 행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성관계 및 불신'으로 명명했다. 요인 II (6문항)는 부인의 사회적 활동 및 여가 활동 제약 그리고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관련이 있어 '아내의 사회적 활동 및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명명했다. 요인 III (4문항)은 '성적인 문제 및 혼수문제'로 요인 IV (3문항)은 '가족에 대한 소홀 및



<그림 2> 폭력행위별 폭력율

〈표-2〉 결혼 갈등의 요인분석

문항	I	II	III	IV	V	VI	VII	Communality
이성관계지속	.82	.07	.05	.11	.14	.14	-.01	.72
배우자의 부정행위	.79	.03	.21	-.13	.20	.06		.71
외박 또는 가출	.65		.18	.39	.09	.19	.13	.67
애정이 없음	.52	.42	.30	.27	.13	.04	.19	.66
거짓말로 인한 불신	.47	.12	.19	.30	.23	-.06	.31	.52
아내무시	.42	.41	.33	.22	.41	.06	.03	.67
의심증, 질투심, 신경질, 화냄 등	.38	.35	.31	.08	.09	.25	.31	.54
사회적 활동(직장, 동창회, 계모임 등)에 대한 이해부족	.04	.75	.26	.06	.23	.07	.06	.70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에 대한 이해부족	-.02	.74	.17	.	.19	.14	.12	.65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무능력	.05	.60	-.06	.46	-.04	.04	.05	.57
종교적인 차이	.17	.45	.06	.05	.21	.37	.05	.42
술주정	.18	.39	.03	.22	-.10	.32	.27	.42
성적 기능의 문제	.11	.07	.81	.10	.06	.20	.05	.72
성적욕구의 불일치	.22	.09	.80	.18	-.02	-.03	.10	.74
애정이 없는 성행위의 요구 및 성적 불만족	.23	.33	.72	-.01	.07	.05	.06	.70
혼수문제	-.01	.09	.44	.38	.22	.42	.02	.57
가족을 돌보지 않음	.17	.26	.07	.72	.03	.12	.32	.73
도박	.37	.07	.16	.70	-.01	.06	.07	.65
시가식구들의 간섭	-.05	.	.25	.57	.30	.30	-.08	.57
권위주의적이면서 매사를 독단적으로 처리	.27	.08	.09	.29	.76	.01	.06	.75
경제적 독점	.16	.31	.08	-.20	.62	.17	-.01	.58
물건 구매시 의견 불일치	.27	.14	-.14	.19	.61	.03	.16	.54
남편의 가사에 대한 비협조	.06	-.03	.20	.01	.54	-.05	.53	.62
시가식구들에 대한 지나친관심 및 처가식구에 무관심	-.06	.19	.10	-.04	.48	.15	.41	.47
신체불구	.26	.15	.07	-.06	-.03	.75	.04	.66
출산 불가능	.24	.15	.04	.11	-.04	.71	-.03	.60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문제	-.13	.01	.07	.13	.17	.64	.12	.49
자녀양육에 대한 무관심	.	.15	.02	.10	.08	.12	.78	.66
늦은귀가	.50	.04	.06	.09	.06	.07	.56	.58
남비생활	.17	.09	.05	.46	.17	-.05	.51	.56
Eigen값	8.68	2.05	1.96	1.70	1.58	1.28	1.19	
설명변량	.29	.07	.07	.06	.05	.04	.04	
누가변량	.29	.36	.42	.48	.53	.58	.62	

〈표-3〉 각 갈등요인의 유형에 따른 폭력·비폭력 집단의 변량분석

	N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	요인 VII
폭력집단	93	2.04A	1.99A	1.92A	1.89A	2.46A	1.44A	2.23A
비폭력집단	91	1.31B	1.41B	1.45B	1.37B	2.04B	1.29B	1.76B
F		48.17***	30.36***	15.75***	18.19***	9.46***	2.46	12.52***

* P < .05 ** P < .01 *** P < .001

〈표-4〉 가족결합력과 폭력·비폭력 집단의 변량분석

	N	가족결합력	F
폭력집단	93	3.46A	
비폭력집단	91	3.94B	27.54***

* P < .05 ** P < .01 *** P < .001

시가와와의 관계'로 규정했다.

요인 V (5문항)는 '권위주의 및 독단적 처리'로 명명하였고, 요인 VI (3문항)은 '신체 관계'로, 요인 VII (3문항)은 '자녀양육 및 늦은 귀가'로 규정하였다.

각 갈등 요인 유형에 따라 폭력·비폭력 집단간의 차이를 보기 위한 이원변량분석 결과와 Duncan's Multiple Range (D.M.R.)검사 결과는 〈표-3〉와 같다.

〈표-3〉에서와 같이 갈등요인 VI '신체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갈등요인의 유형에서 폭력가정과 비폭력 가정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성관계 및 불신', '사회적 활동 및 경제', '성적인 문제', '가족에 대한 소홀 및 시가식구들의 간섭', '권위주의 및 독단적 처리', '자녀양육 및 늦은 귀가 영역의 갈등'등의 요인에서는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등요인 VI '신체관계'의 경우에도 폭력가정의 경우 비폭력가정과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정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비폭력 집단간의 가족결합력의 차이를 보기 위

한 이원변량분석 결과와 D.M.R.결과는 〈표-4〉과 같다. 가족결합력이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간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갈등처리 능력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결합력은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4. 투입요소와 산출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결혼만족도와 투입요소인 갈등요인의 관계는 어떠한지와 결혼만족도와 투입요소인 가족결합력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보았다. 먼저 비폭력가정의 결혼만족과 결혼갈등의 상관관계〈표-5〉와 폭력가정의 결혼만족과 결혼갈등의 상관관계〈표-6〉를 보고 비폭력가정의 결혼만족과 가족결합력의 상관관계〈표-7〉와 폭력가정의 결혼만족과 가족결합력의 상관관계〈표-8〉를 보았다.

비폭력가정의 경우에 결혼만족과 결혼갈등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결혼만족과 유의도 수준에서의 차이는 있으나 갈등요인 전체,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V, 요인 VII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요인 IV와 요인 VI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성관계 및 불신', '아내의 사회적 활동 및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성적인 문제 및 혼수문제', '권위주의 및 독

〈표-5〉 비폭력가정의 결혼만족도와 갈등요인의 상관관계표

	갈등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	요인 VII
결혼만족도	-.56102***	-.34856*	-.38438**	-.39284**	-.21432	-.40278**	-.25638	-.43188**

* P < .05 ** P < .01 *** P < .001

〈표-6〉 폭력가정의 결혼만족도와 갈등요인의 상관관계표

	갈등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	요인 VII
결혼만족도	-.53008***	-.58688***	-.31958***	-.39970***	-.32139***	-.29761***	-.16501	-.31276***

* P < .05 ** P < .01 *** P < .001

〈표-7〉 비폭력가정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결합력의 상관관계표

가족 결합력	
결혼만족도	.53711***

* P < .05 ** P < .01 *** P < .001

〈표-8〉 폭력가정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결합력의 상관관계표

가족 결합력	
결혼만족도	.53720***

* P < .05 ** P < .01 *** P < .001

단적 처리', '자녀양육 및 늦은귀가' 등의 결혼 갈등요인은 결혼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나 결혼갈등요인 중 '가족에 대한 소홀 및 시가와의 관계'와 '신체 관계'는 결혼만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가정의 결혼만족과 결혼갈등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요인 VI 을 제외하고 결혼만족은 P < .001 수준에서 갈등요인 전체,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I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관계 및 불신', '아내의 사회적 활동 및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성적인 문제 및 혼수문제', '가족에 대한 소홀 및 시가와의 관계', '권위주의 및 독단적 처리', '자녀양육 및 늦은귀가' 등의 결혼 갈등요인은 결혼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나 결혼갈등요인 중 '신체 관계'는 결혼만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조사 결과에서는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모두에서 결혼갈등요인 중 '신체 관계'는 결혼만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와 투입요소인 가족결합력의 관계는 어떠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폭력가정의 결혼만족

과 가족결합력의 상관관계(표-7)와 폭력가정의 결혼만족과 가족결합력의 상관관계(표-8)를 보았다. 결혼만족과 결혼갈등의 상관관계는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모두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결합력과 결혼만족도는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간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가족결합력과 결혼만족도간에 부적인 관계로서 비폭력 가정이 폭력가정보다 가족의 결합력이 높고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5. 처리과정과 산출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결혼 만족도는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9〉과 같이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비폭력집단의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일반가정(184가구)을 대상으로 하여 아내에 대한 폭력의 실태 파악 및 폭력가정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가정관리의 체계 모형에 근거하여 갈등요인, 가족결합력(투입), 결혼만족도(산

〈표-9〉 가족결합력과 결혼만족도에 따른 폭력·비폭력 집단의 변량분석

	N	결혼만족도	F
폭력집단	93	4.19A	
비폭력집단	91	5.00B	31.30***

* P < .05 ** P < .01 *** P < .001

출)를 폭력 비폭력 행위(처리과정)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폭력행위와 가족관계적인 측면인 결혼만족도와 연결시켜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이다.

본 연구를 통한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 184명 중 50.5%(93명)가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물건을 아내에게 집어 던지는 행위로 부터 흉기 사용에 이르기 까지 어떤 폭력적인 행위라도 한 두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폭력가정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으로는 비폭력 가정과 비교해 볼 때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종교, 결혼생활 지속년수, 가족생활주기, 가족구성, 자녀수)에 있어서 분포상 두드러진 차이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가정에 있어서는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아내폭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미국가정에서도 노동자 계층과 하류계층에서 중류계층보다 폭력이 보다 더 빈번 할지라도 아내학대는 모든 사회계층에서 존재한다는 것(Lamman and Riedmann, 1985)과 유사한 결과이다.

3.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에 있어서 '이성관계 및 불신', '사회적 활동 및 경제', '성적인 문제', '가족에 대한 소홀 및 시가 식구들의 간섭', '권위주의 및 독단적 처리', '자녀양육 및 늦은 귀가'의 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나 폭력가정이 비폭력가정보다 이들 갈등영역에서 갈등정도가 높았다.

외관상으로는 단순한 문제로 보이는 부부 갈등이 확대 상승되어 전체관계를 위협하는 비참한 불화나 애정결핍 또는 폭력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갈등이 확대되거나 반복되는 것은 보통 부부공동에 의해서 발생되며 (Sillars, Jones & Murphy, 1982), 갈등은 어느 특정한 상대의 탓 만은 아니고 오히려 일련의 피드백을 포함하는 공동체제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갈등에 의해 야기되는 폭력행위는 부부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이지만 그 폭력행위가 주로 남성들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과 폭력의 피해자(여성)측에서 과거의 상처에 대한 기억이 더 명

료하여 연구 대상을 여성으로 하였다.

우선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인들이 그들의 결혼생활에서의 폭력행위와 관련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갈등요인들은 '배우자의 부정 행위 및 불신', '아내의 사회적 활동제약 및 경제문제', '성적인 문제', '남편의 가족에 대한 소홀 및 시가의 간섭', '권위주의적 독재적인 태도 및 가사예의 비협조', '자녀양육 문제 및 늦은 귀가'로 밝혀졌다.

거의 모든 부부는 서로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결혼 서약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성적인 배제 (sexual exclusivity)를 결혼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대로 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Lamman and Riedmann, 1991). 즉 부부는 그들 관계만의 성적인 관계를 갖기를 약속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적인 배제의 중요성에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는 부부 「관계」 그 자체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애정상실 및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어 극심한 갈등으로 치달아 감정폭발로 인한 폭력에까지 이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법률에 의한 결합(union by law)이라기 보다는 애정에 의한 결합(union by affection)이 중대사 (Spencer, 1876)임을 지적한다.

아내의 사회적 활동의 제약 및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폭력을 야기시켰다는 사실은 현대사회의 변화과정 가운데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다는 현실과 이에 대한 남편의 불만 간의 의견차이로 인한 부부갈등이 중요 요소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집단에서 아내에 대한 폭력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가정밖에서의 문제들이 가정내에서의 폭력으로 전이된 결과가 되었다. 직장에서 위협을 느끼고 가치가 감소된 남성이 그의 삶의 주인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가정에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Straus 팀, 1980)을 뒷받침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반응으로서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폭력남성의 상(像)(Edleson 팀, 198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그 자체만으로는 폭력을 설명하는데 필요, 충분 요건은 아니고 여러 다른 요인들이 부가적일 때 폭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다. 왜

나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해결책으로서 결코 폭력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폭력가정에서 보편적인 또 다른 갈등영역은 성적인 문제이다(Straus, 1980). 본 연구의 결과는 성기능상의 문제와 성적인 요구가 일치하지 않고 애정 없는 성행위의 요구로 인하여 부부간의 성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집단에서 폭력 발생의 가능성이 높았다. 몇몇 심리분석가들은 폭력 가정을 면접하는 동안 성적인 어려움이 격렬한 가정에서 폭발을 자주 했으며 부인들은 남편이 성불능이라고 언급하였고, 남편은 아내가 불감증이라고 지적하였다고 보고한다. 성적인 문제가 부부들 간의 폭력과 연결되어 진다고 가정하면 가정에서의 치명적인 방(deadly room)이 침실이 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가정에서의 사망사건 5건중 1건이 침실에서 일어났다(Wolfgang, 1958).

또한 남편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가정과 시가와의 갈등이 남편의 폭력으로 연결되었다. 결혼생활은 가족성원들 서로가 상호작용하고 가족을 창출함과 동시에 이들의 생활속에서의 기본적인 욕구 즉 신체적, 정신적인 보살핌을 받기를 기대한다. 현대사회의 핵가족화가 전통적인 친족 또는 공동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더욱 가족성원들간의 결합이 매우 중요시 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가와의 갈등과 폭력과의 연결은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친족집단의 영향력(특히 남성 친족집단)이 부부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의 권위주의적·독재적인 태도가 높은 집단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는 개인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남성에게 권세와 세력을 부여하는 부권체계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가부장제는 가족내에서의 불평등한 자원의 분배와 세력을 정당화하려 하며 이러한 세력이 남용되어 질 때 폭력이 일어난다. 가부장적인 남성은 그들이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졌다고 믿고 있고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게 된다(Pagelow, 1984).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부공동의 의사결정의 정도와 폭력 가능성간의 관계에서 부부공동의 의사결정이 낮은 가족에서 학대율이 높았다(Straus 팀, 1980)는 지

적과 의견을 같이 한다.

그리고 가사에서의 남편의 비협조 즉, 가사의 분담 영역에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평이 갈등을 심화시켜 부부간의 신체적인 상처에까지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폭력과 연결된 갈등 영역 중 가사(house keeping)라는 Straus(1980)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아마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 이 영역에서의 갈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자녀양육에 무관심하며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한 아내의 불만이 갈등을 야기시켜 이로 인한 다툼이 많은 집단에서 폭력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은 자녀에 대한 갈등이 부부폭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들의 궁지와 만족감의 가장 강력한 근본이며 부모들은 자녀들의 복지에 관하여 지극히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어머니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고 아내에게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떠맡긴채 무관심하고 늦은 귀가는 자연히 아내에게 불평을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불평들이 부부간에 격렬한 다툼으로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녀는 어느 한쪽 부모만의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족을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 가족결합력(family strength)과 폭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가족을 잘 움직여 나가는 힘을 가진 가족을 '건강한(healthy)' '유능한(competent)' '성공적(successful)'인 가족의 뜻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들은 성장하고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체계이며 가족원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가족이 제대로 수행하여 가족의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을 움직여 나가는 실제적인 힘(family strength)이 약한 집단 즉, 본연구의 결과에서 폭력발생이 높은 집단에서는 가족원들 간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 어렵고 서로에 대한 신뢰심이 약하고 상호간에 비판적이고 가족에 대한 성실성과 궁극적, 긍정적인 가치와 신념이 약하며, 가족의 인적인 자원이 부족하였다.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부분은 책임(commitment), 대화 그리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능력(creative use of conflict)

이다(Macc, 1980).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상이한 의견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이한 의견의 절충과정에서 노여움이나 폭력이 아닌 건설적인 갈등처리 능력의 자원이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족으로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 폭력은 다른 자원이 부족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다(Lamanna and Riedmann, 1991). 가족을 움직여 나가는 힘(family strength)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연구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하여 상이한 의견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족을 성공시키는 기본원리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그들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대한 가치와 다른 사람의 표현을 진정으로 칭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다(Strong, 1986).

5. 폭력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로 나타나 폭력가정에서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본연구의 결혼만족도는 KMS(Kansas Marital Satisfaction)의 척도로서 측정된 결혼만족도의 내용으로서 폭력가정에서 결혼에 대한 만족, 배우자로서의 만족,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 낮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what people want)에 있어서의 차이는 불가피하고 만약 그 집단의 계속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원하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에 의한 갈등은 허락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 차이점들을 해결하려는 방법(how)은 별개의 문제이다. 신체적 폭력은 논쟁하는 측에서 그들의 목적이나 이익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중의 한가지 방법이다. 폭력은 갈등을 건설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깨뜨려졌다는 전형적인 신호이다. 즉 갈등을 건설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부들에게는 결혼생활의 만족을 기대한다는 것이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배우자의 신체적 폭력사용이 가족결합력과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관계로 관련되어 본 연구의 결과는 남편의 폭력은 가족생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자료를 제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투입(요구 : 결혼갈등, 자원 : 가족결합력)부분과 변환 영역(폭력·비폭력적인 갈등처리 행위) 그리고 산출(결혼만족도)부분 간에는 상호작용하고 있음이 본 연구결과 밝혀져 가족폭력에 대한 가정관리 체계의 모델접근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체계적인 관점은 상호작용하고 있는 단위들 간의 관계를 강조한다(Rice and Tucker, 1986).

그리고 가정내의 폭력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가족관계가 손상(결혼만족 감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로 부터 인과적인 추론을 도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연구는 횡단적 이었고 상호관계의 자료이어서 직접적인 원인-결과와의 진술은 불가능 하였다. 왜냐하면 결혼불만족이 폭력을 야기 시켰는지 아니면 폭력 때문에 결혼 불만족이 높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가족결합력이 낮아서 폭력을 일으켰는지 폭력행위가 일어나서 가족결합력이 낮아졌는지는 밝힐 수 없다. 그러나 아마도 이 요인들 간에는 호환적인 결정들이고 순환적인 형태로 기능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폭력의 증가는 결혼만족도의 감소와 가족결합력이 낮아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폭력은 개인 가족원 뿐 아니라 가족내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결혼불만족)이 초래된다는 데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건설하고 가족결합력이 높은 건강한 가정은 갈등을 경험 할 지라도 그 갈등을 건설적·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추정 할 수 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 수록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어적·신체적 학대가 더 높았다는 지적도 있다(김정옥팀, 1992).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로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불신' '아내의 사회적 활동 제약 및 경제문제' '성적인 문제' '남편의 가족에 대한 소홀 및 시가의 간섭' '권위주의적·독단적인 태도 및 가사예의 비협조' '자녀양육 문제 및 늦은귀가' 영역에서 갈등이 많고 가족원의 자기감정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며 가족에 대한 긍지와 성실성과 같은 가족자원이 부족하고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이 폭력가정

의 원인이라기 보다 폭력가정의 특성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후속 연구로서는 효과적인 갈등관리 전략과 가족결합 증진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있어서의 폭력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과론적인 추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 1) 김경화(1986), 아내학대의 영향변인에 대한 조사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 2) 김광일(1985a),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조사, 정신건강연구, 제3집 : 218-234.
- 3) 김광일(1985b), 구타당하는 아내 50명의 정신의학적 연구, 정신건강연구, 제3집 : 235-256.
- 4) 김정숙(1986), 가정내 폭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아내구타를 중심으로-, 효성여대 석사학위 논문.
- 5) 김정옥(1985), 도시부부의 갈등해결 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2호, 91-110.
- 6) 김정옥(1987), 도시부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아내에 대한 폭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7) 김정옥(1992),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가정복지세미나, 서울특별시, 한국가족연구회.
- 8) 김정옥, 박순희(1990), 가족스트레스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3호, 127-145.
- 9) 김정옥, 이현혜, 전형미(1992), 자아존중감, 부부간 의사소통 및 응집·적응력이 아내학대에 미치는 영향, 여성문제연구 20집,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 10) 사법연감(1991), 법원행정처.
- 11) 서명선(1984), 아내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구조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대석사학위 논문.
- 12) 심재근(1984), 가정내의 폭력과 공격성 -아내구타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13) 윤진(1987), 폭력이론 -공격행동의 심리적 기제-, 정신건강연구, 제6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10.
- 14) 이연숙, 두경자(1992), 가정관리체계모형의 실증적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1호, 163-178.
- 15) 이영숙(1986), 한국도시가족 부부간의 지위관계와 부인학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6) 전춘애(1989),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의 권력과 폭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7) Bavoled, B.(1983), Parents Anonymous in Wisconsin : An in depth look at PA families, Techkhal Report, University of Wisconsin-Eau Claire.
- 18) Cattell, R.B.(1966), The scree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 246-276.
- 19) Cuber, J.F., & Harroff, P.B.(1965), Sex and the significant Americans, Baltimore : Pelican.
- 20) Edleson, Jeffrey, et al.(1985), Men Who Batter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6(2), 229-247.
- 21) Gelles, R.J., and Cornell, C.P.(1985),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Sage, Beverly Hills.
- 22) Lamanna, M.A., & Riedmann, A.(1985), Marriage and Families, 2th edition,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23) Lamanna, M.A., & Riedmann, A.(1991), Marriage and families, 4th edition,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24) Mace, D and Mace, V.(1980), Enriching Marriage, In Nick Stinnet, et al., eds., Family Strengths,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25) Olson, D., Larsen, A., and McCubbin, H.(1982). Family Strengths Scale. In McCubbin, H. & Patterson, J.M.(Eds.), Systematic assessment of family stress, resources, and coping : Tools for research, education, and clinical intervention. St. Paul, MN : Family Social Science Department, University of Minnesota.
- 26) Pagelow, M.D(1984), Family violence, New York : Praeger.
- 27) Price, s., & Mckenry, P.(1988), Divorce, Beverly

Hills : SAGE

- 27) Retzinger, S.M.(1991), Violent Emotions, SAGE.
- 28) Rice and Tucker(1986),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29) Schumm, W.R., Anderson, S.A., Benigas, J.E., McCutchen, Griffin, C.L., Morris, J.C. & Race, G.S.(1985), Criterion related to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6, 719-722
- 30) Sillars, A., Jones, T. & Murphy, M.(1982),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marriag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0, 317-350.
- 31) Spencer(1976), The Family :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New York : American Book Co.
- 32) Strau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 75-88.
- 33) Straus, M.A., Gelles, R.J., & Steinmetz, S.K. (1980). Behind Closed Doors :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 Anchor/Doubleday.
- 34) Strong, B.(1986),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 Christine Devault.
- 35) Walker, L.E.(1979), The Battered women syndrome, New York : Harper and Row.
- 36) Wolfgang, M.E.(1958), Patterns in criminal homicide,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부록〉 폭력·비폭력 가정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

%(N)

변 인		폭 력 가 정		비 폭 력 가 정	
		아 내	남 편	아 내	남 편
연 령	30세이하	19.35(18)	6.45 (6)	17.58(16)	9.89 (9)
	31-35	15.05(14)	16.13(15)	18.68(17)	15.38(14)
	36-40	13.98(13)	17.20(16)	15.38(14)	19.78(18)
	41-45	15.05(14)	10.75(10)	17.58(16)	10.99(10)
	46-50	22.58(21)	19.35(18)	14.29(13)	15.38(14)
	51-55	6.45 (6)	19.35(18)	10.99(10)	14.29(13)
	56-60	5.38 (5)	7.53 (7)	4.40 (4)	9.89 (9)
	61세이상	2.15 (2)	3.23 (3)	1.10 (1)	4.40 (4)
교 육	국졸	9.30 (8)	8.11 (6)	15.31(15)	9.59 (7)
	중학교 졸업	17.44(15)	14.86(11)	18.37(18)	8.22 (6)
	고등학교 졸업	45.35(39)	44.59(33)	38.78(38)	39.73(29)
	전문대학 졸업	6.98 (6)	8.11 (6)	4.08 (4)	10.96(8)
	대학교 중퇴	3.49 (3)	4.05 (3)	3.06 (3)	4.11 (3)
	대학교 졸업	13.95(12)	16.22(12)	18.37(18)	24.66(18)
	대학원 졸업	3.49 (3)	4.05 (3)	2.04 (2)	2.74 (2)
직 업	대기업주, 자본가, 정부의 최고위 관리직		1.08 (1)		
	전문직, 관리직	2.15 (2)	20.43(19)	3.30 (3)	16.48(15)
	사무직, 기술직	12.90(12)	34.41(32)	9.89 (9)	35.16(32)
	자영의 상인, 기능인, 서비스직	10.75(10)	25.81(24)	19.78(18)	39.56(36)
	피고용 기능인	2.15 (2)	6.45 (6)		3.30 (3)
	단순노무자, 청소원, 행상	5.38 (5)	5.38 (5)	2.20 (2)	1.10 (1)
	무직(아내 : 주부)	61.29(57)	3.23 (3)	63.74(58)	
	은퇴		2.15 (2)		3.30 (3)
	시간제 근무	5.38 (5)	1.08 (1)	1.10 (1)	1.10 (1)

〈부록〉 계속

변 인		폭 력 가 정	비 폭 력 가 정
월 소 득 수 준	50만원이하	3.23 (3)	1.10 (1)
	50-75만원	8.60 (8)	12.09(11)
	75-100만원	30.11(28)	26.37(24)
	100-125만원	19.35(18)	14.29(13)
	125-150만원	11.83(11)	12.09(11)
	150-175만원	9.68 (9)	7.69 (7)
	175-200만원	10.75(10)	10.99(10)
	200만원이상	6.45 (6)	15.38(14)
종 교	없 음	30.11(28)	21.98(20)
	개신교	12.90(12)	14.29(13)
	카톨릭	11.83(11)	15.38(14)
	불 교	43.01(40)	46.15(42)
	기 타	2.15 (2)	2.20 (2)
결 혼 지 속 년 수	5년 미만	15.05(14)	17.58(16)
	5-10년미만	18.28(17)	15.38(14)
	10-15년미만	11.83(11)	19.78(18)
	15-20년미만	11.83(11)	8.79 (8)
	20-25년미만	24.78(23)	17.58(16)
	25-30년미만	8.60 (8)	10.99(10)
	30년 이상	9.68 (9)	9.89 (9)
가 족 생 활 주 기	신혼기	5.38 (5)	6.59 (6)
	첫자녀를 낳았으나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	18.28(17)	17.58(16)
	첫자녀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시기	13.98(13)	17.58(16)
	첫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	18.28(17)	17.58(16)
	첫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시기	18.28(17)	17.58(16)
	첫자녀가 결혼, 직장을 가지는 시기	19.35(18)	15.38(14)
	막내자녀까지 떠나고 난뒤, 부부만 있으나 직업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4.30 (4)	4.40 (4)
직업에서 은퇴한 후 부부만 남아있는 시기	2.15 (2)	3.30 (3)	
가 족 구 성	부부	7.61 (7)	8.79 (8)
	부부, 자녀	69.57(64)	69.23(63)
	부부, 자녀, 시부모	15.22(14)	17.58(16)
	부부, 자녀, 친정부모	2.17 (2)	3.30 (3)
	기타	55.43 (5)	1.10 (1)
자 녀 수	없음	4.30 (4)	6.59 (6)
	1명	17.20(16)	16.48(15)
	2명	39.78(37)	42.86(39)
	3-4명	26.88(25)	28.57(26)
	5명이상	11.83(11)	5.49 (5)